

제5회 월경페스티벌

百女百色



2003년 9월 6일 늦은 7시 30분 _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주최_ 여성문화기획 불턱·연세대학교 총학생회

design_ 조민주

태평양



머릿결을 바꾸는 과학! 헤어팩 나노테라피

머릿결이 바뀌기 위해서는 보습, 영양, 탄력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헤어팩을 100%의 나노크기로 만들어 건강한 머릿결이 갖춰져 있는 수분, 탄력, 영양을 머릿결 깊숙이 침투시켜 빠르게 공급하는 나노테라피 100%의 나노크기로 만든 헤어팩 한 줄 한 줄을 건강하게 헤어지게 도와줍니다.

15

15분 사용 후 40%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나노크기로 다 침투하여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40

40분 사용 후 40%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나노크기로 다 침투하여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80

80분 사용 후 40%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나노크기로 다 침투하여 보습, 탄력성 1.5배 증가



헤어팩 사용 방법



LIQUID ROUGE

[리네즈 리퀴드 루즈]

내 입술을 위한 반짝파티

입술에 시선집중! 자신있게 반짝반짝!
물트라 에탈릭 뿜과 트렌디 컬러가 만났다.

- ▶ 반짝반짝 윤기있게 : 촉촉한 액상에 함유된 물트라 제형이 물 성분으로 인해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 ▶ 하루종일 선명하게 : 보일 반전된 컬러 스킴에서 시스템에 의해 입술이 더욱 쏠쏠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 뿜과 버튼은 편리함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eryday New Face

LANEIGE

왜 百女百色인가?
프로그램

04

06

프로그램 소개
출연자 프로필

월경영화제 및
프리페스티벌

10

14

여성문화기획 불턱
격려의 글

百女百色을 기획하며

21

내 몸의 주인이 너라구?
대안생리대에 관하여

22

26

월경수다
카툰 (장차현실)

제5회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30

32

Thanks to . . .



Tempo

서유럽에서는 10명 중 8명이 체내형 생리대를 쓴다면서요!

서유럽여성들의 80%가 템포와 같은 체내형 생리대를 애용합니다

체내형 생리대는 중세시대에 문화선진국 프랑스와 영국을 통해 유럽에 소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선 체내형 생리대가 바로 생리대를 뜻할
정도로 대부분의 여성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체내형 생리대 - 한국에도 템포를 찾는
여성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가 찾은 자유-템포



문의전화 02-0000-8264 www.ilovetempo.com



* 흡착력이 떨어지면 통상상으로 자세한 사용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왜

百女百色
인가?



우그녀, 성적 주체가 되기까지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성(性)은 어떤 양태들인가?

대중교통과 거리를 위시한 모든 일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미디어에서 강도 높게 재현되는 연애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 화장실의 낙서에서, 내 몸으로 체현되는 것은 난무하는 '폭력'의 경험이다. 그래, 내 종아리로 쏟아지는 저 끈적한 시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더러운 호흡, 저열한 웃음과 땀으로 뒤범벅된 저 손, "어젯밤에 그대야..." 그들의 화법, 이몸에서 예뻐서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여성인 나는 발화할 수 있는가?

줄곧 무성적인 것으로 상징된 여성의 성(性)은, 여성의 발화를 금해 왔고, 안전한 섹스 파규어가 되기를 완곡하게 거부하는 여성들을 처벌해 왔다. 이분법에 유순하게 길들여져 온 그들은 왜일인지 낙인 찍기를 즐긴다.

하면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여 종내 침묵할 것인가, 혹은 성적 주체로 서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나, 여기서.

여성들은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고안해 내었다. 본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자연적인 그것으로 정당화해버리는 남성적 담론에 대항하여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을 사건의 준거로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저 용어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 취약함을 반증하고 있음은 물론, 여남은 전략을 시사한다.

내 요구는 물론, 내 실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여성들에게 강박적으로 요구되기보다는, 담론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더 불어 그것이 담론이 되기까지는 모든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성을 매개한 폭력이 더불어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당신은 새삼스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여성에게도 성적인 욕망이 고유하며 여성의 성적 실천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여 우리는 급진적으로 선언하기를, 침묵을 요구한 입술의 봉인을 찢어 성적 주체로 서기 위한 투쟁을 여기!!

이것이 제5회 월경페스티벌 百女百色の 시발(始發)이 되었다.

오프닝_ 여성주의 밴드 '함성'의 축하공연

퍼포먼스_ '페미먼스'의 <Dancing Blood>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의 축하공연

입김의 영상인터뷰

극단 목토의 <월인천강지곡>

3호선버터플라이의 축하공연

단편영화 <탐폰설명서> 상영

모놀로그_ <의자>

자유발언대_ 월경과 여자의 몸에 대한 관객들의 자유로운 이야기들

가수 이상은의 축하공연

콘돔 터뜨리기_ 성에 대한 고정된 인식과 편견을 날려보내자

레이브파티_ DJ 風身

program



프·로·그·램·소·개

페미먼스의 <Dancing Blood>

우린 종종 손, 코, 입 등에서 피가 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유독 월경혈이 끈적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Dancing Blood>에서는 월경혈에 유쾌함을 담아내고자 한다.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가볍게 즐기길 바란다.

목토-월인천강지곡

전쟁이 잦은 그리스에서 남자들이 전장에 여자들의 생리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생긴다. 월경혈이 불결한 것으로 치부되어 적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다. 남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고쳐주고자 여자들은 월경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월경의 신의 도움으로 남자들도 월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단편영화 <탐폰설명서>

'탐폰으로만 쓰라는 법이 있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여성과 레즈비언의 성적 욕망에 대한 즐거운 상상, 또 고정관념에 대한 감독의 유쾌한 도전이다. '탐폰 콤마'라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영상으로 제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크게 세가지로 탐폰의 사용 용도를 설명한다. 첫째가 생리대로써의 용도, 두 번째가 마스터베이션을 위한 도구, 세 번째가 레즈비언의 섹스 도구로서의 사용법이다.

모놀로그-의자

여자의 몸은 진정 자신의 것인가? 두 여인의 독백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여성들의 과제가 되어버린 다이어트, 여성들은 날씬하고 큰 키만을 선망한다. 하지만 다이어트 역시 사회가 재단해 놓은 터무니없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타율적인 일이다.
여성의 성은 수동적이고 감춰야 할 것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여성 또한 다양한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이다.
모놀로그의 두 여인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인 식욕과 성욕을 감추고 눌러야만 했던 여성의 모습을 대변한다.

• 여인 1, 섹스도 가사라고?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늘 만족으로 얻지 못하는 여인1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성 감대를 찾고 남편에게 다른 식의 성관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일방적인 섹스만을 강요하는 남편에게 반발한다.

• 여인 2, 내 몸을 혹사시키는 데도 이젠 질렸어!

동동한 몸에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아 온 여인2는 파눈올나는 다이어트를 감행한다. 그로 인해 월경이 멈추고 거식증을 얻는 등 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다이어트 권하는 사회'에 분노를 느낀 여인2는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자유를 선언한다.

● 사회 최광기/ 여성주의 문화행사 전문 MC



출연자 프로필

● 여성주의 밴드 '함성'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래패 함성

동호, 성은, 주열, 영미, 지민, 익현, 병일, 수아, 지은, 윤정, 동철, 지연, 윤주
민중가요를 비롯한 여러 음악으로 메시지가 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 노래패.
관악페미니즘문화제, 인문대 페미니즘문화제, 함성 단독워크숍 등에서
통쾌한 가사와 신나는 음악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과 남성중심주의를 압박해 왔다.

● 여성주의 퍼포먼스 전문집단 Femimance



하자센터 걸스킵합 프로젝트 시니어와 연세대학교 여성주의자로 구성, 일상에서 제
기되는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읽고 몸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반전 퍼
포먼스 '어느 평온한 날의 이야기'로 다수의 공연 및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대상
을 수상한 바 있다.

● 안혜경



페미니스트 가수, Singer-Songwriter

'까치길', '일이 필요해' 등 150여 곡 작사, 작곡

시민운동단체 및 대학, 각종 행사 출연 등 다수 공연 활동

●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



정정엽, 우신희, 하인선, 제미란, 곽은숙, 류준화, 윤희수, 김명진

회화,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서 각자 개별적인 작업들을 활발히
펼치면서, 비정기적으로 여성주의 미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페미
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입김'은 2000년 9월 가부장적 위계 질서를 뒤집어
보고 사물화된 여성의 몸에 새로운 시선을 부여하고자 대중 참여의 여성미술

축제 형식의 '아방궁 중요점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중요 앞 시민공원에 계획하였던 설치 작업이 이씨종친회의 물리적 집단저지에 의해 무산되는 난항을 겪으
면서 3여 년의 긴 법정으로 투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중요 여성 행위예술 유림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어 승소하였다.

● 극단 목토



목토(木土)는 [산과 대지 위에 우뚝 선 인간, 우주의 기운을 향
해 뻗어나가는 몸짓, 그 가운데 펼쳐지는 세상의 소리]라는 뜻으
로 일상의 터전에서 물이의 장, 생성의 장으로서 본질을 되찾고
자하는 젊은 그룹이다.

1997, 1998년 1, 2회 세계연극제에 공식 초청되어 [오우제 '97],
[오우제'98]을 선보였으며, 1999년 6월 죽산 국제 예술제에서는 [Next Wave]로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1999년 과천 세계 공연 예술제에서는 [오우제'99]와 [일월도]가 공식
초청되어 공연예술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내뿜고 있다.

● 3호선 버터플라이



남상아, 성기원, 김규형, 휘루, 김상우, 김남윤

'3호선 버터플라이'의 음악은 통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1999년 여름에 결성, 허클베리핀 출신의 남상아, 김상우,
권효준, 99 출신의 성기원이 만나 밴드를 시작. 권효준
탈퇴 후 뽀빠밴드, 윈더비드 등의 밴드에서 활동하던 박

현준 합류, 현재 박현준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하여 밴드를 탈퇴, bass 김규형,
electronic해금 휘루, keyboards 김남윤 합류
현재 3집 녹음준비 중.

● 모놀로그 - 의자



여인1 : 윤세명

김동수 액터즈, 극단 예공

출연작 - 사운드 오브 뮤직, 리투아니아, 왕따 바이러스, 선
영아 사랑해



여인2 : 유주연

명지대학교 연극영상과 1학년, 극단 상상

출연작-거창국제연극제 폐막초청작 <레드> (유리열)

● 가수 이상은



1988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달다디'로 대상

2003년 3월, 11집 '신비체험' 발매

● 레이드파티 진행: DJ 風身(열반화 소속)

월경영화제

월경영화제는 제5회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이 새롭게 시도한 행사이다. 본행사에 앞서 百女百色의 의도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를 선정. 8월 28~30일 연세대학교 제 1공학관에서 개최했으며 '제비꽃향기', '인도식 팝콘', '나와 부엉이', '그녀들만의 것', '고추말리기', '분노를 터뜨려라', '가족프로젝트-아버지의 집', '가이아걸즈', '욕망을 영화화하기' 등 총 9편의 여성영화들이 상영되었다. 8월 29일에는 영화 '나와 부엉이' 제작진과의 대화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행사개요

1. 일시 : 2003년 8월 28일(목)~ 8월 30일(토)(3일간)
2. 장소 : 연세대학교 제 2공학관
3. 주최 및 주관 : 여성문화기획 불턱 제5회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4. 후원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두레방



Pre-Festival 百女百色

8월 24일, 30일, 31일, 3일 동안 제 5회 월경페스티벌이 명동, 대학로 신촌 길거리로 뒤흔쳐나가 월경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난장을 벌였습니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퍼포먼스

키비의 월경랩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깨달았어. 그 사람이 느끼는 '고마움'과 나의 새로운 '알'이 만나는 순간.
스무살의 키비가 마주친 두 번째 월경 이야기"



월경송

월경페스티벌 스태프들과 모든 관객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월경송!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어도
나의 몸이 건강한 신호라고 난 생각해"

생리대에 말걸기

월경에 대한 내 생각을 생리대 위에 쓰고, 염색약으로 예쁘게 색깔을 들어서 줄에 걸어줍시다~



만화로 보는 응급피임 상식

1. 음극피임학이란 ?



2. 응급피임약의 복용시기



3. 융금피입약의 복용방법



4. 응급피임약의 구입절차



5. 응급피임약의 효과 및 안전성



●성폭력예방 및 여성관련 상담소

한국성목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성목력위기센터	02)8654-119
구성애우성센터	02)6268-9090
내일여성센터	02)3141-6191
한국성목력파해상담소	051)752-0871



음금지일학의 구입절차



6. 응급피임약 사용국가



글·그림: 김 옥

자료제공 : **현대약품(주)**

여성문화기획 불턱

현재 국내 유일한 20대 여성운동단체인 여성문화기획 불턱은 1999년 여름, 30대 여성운동가들이 만든 내공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 여성운동가들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 하면서 만들어졌으며 5회에 걸쳐 월경페스티벌을 기획, 진행해 오고 있다.

불턱은 해녀들이 오랜 작업 뒤 옷을 갈아입으며 수다를 떨 수 있는 여자들만의 공간을 창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여성문화기획 불턱 또한 수다를 떨 듯 여성의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늘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자 한다.

제1회 월경페스티벌/ 유혈낭자

1999년 9월 10일 고려대학교 대운동장

제1회 월경페스티벌은 더 이상 여성의 월경이 여성을 불결하게 여기는 기제나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모성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담론을 이끌어 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유혈낭자는 월경, 그 최초의 드러남을 자축한 진정한 페스티벌이었다.

제2회 월경페스티벌/ 달떠들떠

2000년 9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대운동장

달이 뜨는 것이 들뜨는 일인 것처럼, 월경은 들뜨는 일일 수 있다. 제2회 월경페스티벌에서는 여성이 월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아가 월경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즐기는 데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이후 월경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제3회 월경페스티벌/ 애기치 못한 즐거움

2001년 9월 8일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

우리의 주제는 여전히 월경!! 월경은 전 세계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여성만의 고유한 경험인 동시에 개개인의 몸의 역사이다. 제3회 월경페스티벌은 여성들이 여성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인정하자는 주제로 벌어진 축제의 장이었다.

제4회 월경페스티벌/ 경(慶)칠년들

2002년 8월 3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

제4회 월경페스티벌은 "넌 어떤 월경하니?"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각자의 서로 다른 월경이야기를 나누었다.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장애인들의 월경, 또는 트랜스젠더들의 월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월경이라는 화두를 통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행사 당일 비가 와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히려 진정한 경험자들이 모여 월경에 대해 원없이 수다를 떨었던 페스티벌이었다. "말해줘, 넌 어떤 월경하니?"



격려의 글

해묵은 농담이 하나 생각난다. '모 놀이동산이 한국 건가, 일본 건가?' 하는 질문에 '어찌구wald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농담 말이다. 간지럽지만, 나는 진심으로 월경페스티벌이 여러분의 축제라고 생각한다.

수개월 동안 월경페스티벌만 생각하고, 특히나 30도를 넘나드는 8월 여름명절에서 밥 시간,

잠 시간 줄여가며 축제를 준비하던

기획단 시절엔 월경페스티벌이 내 건줄 알았다. 하

지만 대통령도 5년 동안 제자리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젊은이들이 5년에 걸쳐 이 열기행사를 계속 벌일 수 있었던 걸 보면, 오늘도 이 자리를 멀다 않고 와 주신 수많은 열기녀, 열기남이 월경페스티벌의 진정한 주인이란 결론만 나온다. 여성운동은 깃발을 들고 외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의 것이니까 더욱 그렇다. (99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월경페스티벌이 정말 열기에 속했다. —)

모 생리대 회사에서 월경페스티벌을 접수하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월경페스티벌을 좀더 키우려고 같은 멤버가 여러 해 동안 기획단에 남을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정한 월경페스티벌은 다양성과 여성의 주인 됨을 위한 문화 만들기 운동이기에, 지금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새내기들과 함께할 때만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새로 솟아나는 생물이 여인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월경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하니까. 오직 열정 하나로 시작됐던 월경페스티벌이 앞으로 더 많은 여인들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축제로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월경페스티벌에서 자신의 달덩이를 키워볼 여인은 어서 기획단에 이별을 날리면 어떨까?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불턱 사람들은 천원 한 장에 찔찔매며 축제를 준비하지만, 어느덧 9월 6일엔 또 다시 몇천 명의 마음에 보름달을 띄우리. 만세 만세 만만세.

03년 광복절 전날 더위 속에서,
합류 (1, 2회 기획단)



다이안스35, 여성이 뽑은 피임약 '베스트 브랜드'

'마이보라' 아성에 도전하는 신규 브랜드로 떠올라



- 여성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연구소 소비자 정보 센터 공동 '여성소비자가 뽑은 베스트브랜드 대상' 피임약 부문 수상
- 조사결과 응답자의 45%가 '베스트 브랜드'로 다이안스35 꼽아
- 피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는 7, 8월 바캉스 기간동안 약사 대상 감사 이벤트 진행 할 계획

피부개선 효과를 지닌 기능성 피임약 다이안스35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임약 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 25일 여성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연구소 소비자 정보센터는 20~40대 여성 1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안스35가 피임약 부문 '여성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이안스35는 국내에 출시된 지 만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약품 복용자인 여성들 사이에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 또한 브랜드 선정 조사에서 피임약 부문이 추가 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로, 여성들 사이에서 피임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의식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다이안스35는 2001년 9월 출시된 이래 지하철, 공중전화 박스 등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피임약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한 피임약 브랜드. 여드름, 피지가 많은 피부, 그리고 다모성 피부의 증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99.9%의 높은 피임성공률을 가진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피임약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피임약 '베스트 브랜드'로 다이안스35를 뽑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5.7%, 30대가 47.4%, 40대가 35.1%가 다이안스3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성층이 다이안스35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세림은 '여성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브랜드 대상' 선정을 기념해 피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는 7,8월 바캉스 기간동안 약사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여성 포탈과 의학 전문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다이안스35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이안스 홈페이지(www.diane35.co.kr)로 가면 얻을 수 있다.

*제5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브랜드 대상?

(주)여성신문사가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소비자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전국여성소비자 17,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계 중진 인사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정. 피임부문 외 총 50개 분야별로 여성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적, 친소비자적, 친건강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기업을 선정, 발표 격려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사회운동을 증대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며 소비자들 스스로에게는 현명한 소비문화 전파를 전파시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 국 세 립

핵심강령은 연구와 인류를 위한 봉사 활동을 기업지향으로 삼고 있는 세림AG는 전세계적으로, 150여 개국에 걸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세림은 1987년 '한국인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모토로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진단조명제, 여성 호르몬 제제와 피임제 분야, 특수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정기적인 피임교육과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타파하고 감의식 변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피임교육을 통해 여성건강 증진의 공로를 인정 받아 1999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세림은 현재 피임약 '마이보라', '다이안스35'와 기능성 피임약 '다이안스35', 그리고 호르몬성 자궁내시술 '미라나' 등을 한국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피임 때문에 불안해 하는 여자
20대를 넘기도록 여드름과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아직, 모르세요? 다이안스35

다이안스35는 피임은 물론 여성 몸 속의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 여드름까지 개선해줍니다



여자의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여성의 경우 과다한 피지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피임약 다이안스35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보세요.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억제되어 원치

않는 여드름이 개선됩니다. 또한 다이안스35를 올바르게 복용하면 믿을

만한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주기도 일정해집니다. ²⁾

이제 다이안스35로 피임도 생리주기도 일정하게 컨트롤 하고

남성 호르몬까지 조절해서 당신의 몸을 더욱 여성스럽게 관리하세요.

여성을 여성스럽게
다이안스35



*제5회 여성스비자가 좋은 베스트브랜드 대상 선정

☎ 다이안스에게 물어보세요!
(02)705-1777

새로운 다이안스35 웹사이트, 상담도 하고 회원 가입도 하고, 지금 클릭하세요!
www.diane35.co.kr

참고문헌: 1) Colvard H, et al. 1998. The efficacy of oral contraceptives in combination with ethinylloestradiol in acne. J. Dermatol. Treatment 3, 71-79. 2) Ayukawa S, et al. 1990. Long-term therapy of signs of androgenisation with a low-dose antiandrogen-estrogen combination. Clinical Trials Journal 27(8): 352-452.

● 피임 효과: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 피임 효과: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 피임 효과: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 피임 효과: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 다이안스35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도 사용 가능.

Luna 간?

루나간 리틴어로 '달'이란 뜻입니다.

몸을 치나의 소우주라 생각하면 매달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변화인
생리 현상은 매달 차고 기우는 달에 비유 할 수 있습니다.



생리 포탈 전문 사이트

www.e-Luna.com



e-Luna 크림
용량: 200g/7oz
약 3개월 분

※ 전국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대용 구입시
최저예(주) ☎ 090-777-7777

e-luna.com은

임마와 펄이 함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여성의 건강상담, 진찰 및 교육의 작용 제
공받을 수 있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펄생 주치의 Dr. Amo를 만나
실 수 있습니다.

Dr. Amo의 상담실
☎ 080-668-1450

[http:// www.e-luna.com](http://www.e-luna.com)

☆ 경품도 타고 이바타도 즐기세요! ☆



최신형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e-Luna 크림



MP3



구찌 지갑



인라인 스케이트

머시론



호르몬도 계산하셨나요?

머시론으로 기분하게 피임하세요!

에스트로겐 20mcg, 가벼운 피임약 머시론

남다른 사랑을 위해 몸속 호르몬도 꼭 체크하는 당신.
이제 매일 먹는 피임약도 성분·함량을 먼저 살펴보세요.
에스트로겐 함량이 20mcg인 피임약, 머시론!
나를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완벽한 피임약입니다.

Mercilon

www.mercilon.co.kr

에스트로겐 20mcg, 피임이 간편합니다.

- 간편한 피임법 : 먹는 피임약, 머시론을 통한 피임은 간편한 피임법입니다.
- 생리주기 조절 : 머시론은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 우수한 피임효과 : 머시론은 신축도가 높은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동) 머시론 (주) (대표: 김민준)

가벼운 20mcg 피임약, 머시론



한국오가논(주) 임화제약(주)



百女百色을 기획하며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잊고 있던 자궁의 붉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 이렇게 살아 있어, 나 좀 봐 줘...' 내 몸이지만 어릴 때부터 모두들 모르고 지내라고, 모르는 게 악이라고 말했던 내 자궁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이런 자궁의 짝사랑만을 받고 지내왔던 오랜 시간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소리 내어 답하기로 마음먹었다.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만 해 오던 그 실천들과 좌절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서로 길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달랐고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같았다. 결국 여러 방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몸을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의 즐거운 난장에 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털어놓기로 했다.

처음 우리가 모였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모든 것은 백지였고 월경만으로 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어떻게 더 즐겁게 놀 수 있나, 생각하다가 그 동안 우리도 말 꺼내기를 꺼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기로 했다. 약자인 여성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더 강한 내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뒤집어지게 표현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천성이 엄격발랄한 우리는 당장 작업에 몰입하였다. 점차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리따운 청순가련한 여주인공에서부터 에로비디오의 여주인공까지, 나와 일면 닮았지만 닮지 않은 그녀들과 나의 관계에까지 생각이 확대되었다.

결국 남성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여성에 대한 뻥 죽, 어려운 말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침을 뱉고 우리는 '너희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은 다 뻥이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혹자는 우리를 발랑 까진 애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라고 수근거릴 것이다. 또 남들 앞에서 '하린 여성들'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개탄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하하~~~~ 그러나 걱정 마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현재 사회가 원하는 좋은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여성상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살아 가려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처음부터 꿈꿔 왔듯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즐겁고 유쾌한 파워가 일상으로 퍼져 주위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제5회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광모, 나나, 나루, 디아, 릴리즈, 베이, 보리, 시추, 쏜, 아리, 아슈, 안토니아, 이강, 장달, 튼튼소녀 이상 17명

내 몸의 주인이 너라구?!

지금까지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인 응답패설 뒤에 감추어져 왔다. 여성이 성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여성들의 답변을 공적인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여성을 '밝히는 색녀'로 격하시키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가부장적 언설이 무성한 현실인데, 하지만 여성에게는 성에 대한 욕망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의 침묵은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 존재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조용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성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면, 여성의 욕망 위로 타자화된 시선들의 왜곡된 총만이 켜켜이 쌓여 결국 여성의 욕망이 무엇인지 여성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못하는 상황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타인의 성적 행동에 폭력적으로 노출되는 때가 바로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성적 행동을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데 타의에 의해 강제되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지금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크게 침해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욕망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게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예이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다니, 이런 애절한 일이 따로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이 지침을 활용해도 좋고, 여기에 자신만의 새로운 지침을 덧붙이거나 수정해도 좋을 것이다.

*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

1. 성폭력, 성희롱, 데이트·부부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2. 1번에서 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쩔 수 없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결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 당신은 폭력적으로 권리를 빼앗긴 피해자일 뿐이다. 결코 이런 사태의 책임소재를 자기에게서 찾지 말라.
3.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 자신의 성적 욕망이라든지, 몸의 구조라든지... 우리는 아직 성적 주체로서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4.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친구들과 수다떠는 것도 좋고,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피임이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도 좋다. 남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대화하는 방법을 체득하자.
5.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라. 자매애는 강하다!

콘돔 언제?

콘돔은 남성이 수용하는 피임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피임 고유의 목적 외에 성병의 예방효과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콘돔은 남성이 자발적으로 피임과 임신에 대한 책임에 참여하고 또한 가장 간편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워낙에 콘돔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시장이 좁은 편이지만, 수출을 주력으로 한 한국 콘돔 회사가 있다. 그 이름이 썩 재미있는데, 이름하여 UNIDUS-You need us를 이어 읽은 것이다. 남자들, 당신들은 우리가 필요해! 라는 뜻이 아닐까?

어느 피임법이든 100퍼센트 완벽한 피임법은 없다. 2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것을 사용하든 본인의 자유이지만, 여자 쪽에서 하나, 남자 쪽에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피임을 하는 것은 어떨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라! 는 진부한 이야기는 하고 심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 같다.

남자친구가 피임을 귀찮아 할 때 당당히 요구하는 그녀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겠는가.

UNIDUS가 제5회 월경페스티벌 百女百色과 함께합니다.

대안생리대에 관하여

여성과 환경을 위한 키퍼(Keeper)와 검은 생리대

중 2때 처음으로 월경을 하는 날 어머니는 나에게 하얗게 곱게 접힌 옥양목 생리대를 주었다. 여성들은 누구나 월경에 관한 이러한 신화적 사건 하나 둘 품은 맘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옥양목 생리대는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꼭 끼는 청바지를 입을 때 어쩔 수 없이 두툼하게 표가 나는 모양새며, 삶아서 일일이 손으로 빨아야 하는 번거로움이며... 그래서 곧 당시의 생리대의 대명사였던 "후리담"을 쓰기 시작했다. 옥양목 생리대는 냄새도 없고 위생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생리대이긴 하지만 바른 여성들에겐 또 하나의 귀찮은 소일거리가 된다. 그렇다면 먼 생리대와 같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일회용 생리대처럼 번거롭지 않고 편리한 것은 없을까? 내가 키퍼를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열렸던 월경페스티벌 기간(아마도 1회였을 것이다)이었다. 월경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매니문즈(<http://pacificcoast.net/~manymoos/index.html>)라고 하는 대안생리용품 판촉 사이트에서 처음 보게 된 키퍼(keeper)는 생리대도 아니고 탐폰도 아니고 벽돌색의 깔대기같이 생긴 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호기심을 자아냈다. 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캐나다인 친구가 키퍼와 먼 생리대를 주문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시 내가 참여하고 있던 여성모임에 와서 키퍼에 대해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었다. 그녀가 가져온 키퍼는 깔때기 모양으로, 보들보들한 천연 고무로 만들어

져 있었다. 고무 깔대기의 입구를 오무려서 질 안에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말을 듣자 모인 사람들은 아연한 기색이었다. "어떻게 저 큰 것을 집어넣지?" "아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키퍼를 처음 대하는 나와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키퍼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째에 접어든다. 이제 키퍼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리도구가 되었다. 첫째 매달 약 5천 원씩 나가는 생리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인구의 절반 가량이 해마다 내놓는 엄청난 생리대 쓰레기 공해(게다가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땅에 묻어야 한다니...)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 셋째 생리대가 주는 축축하고 찝찝한 느낌과 매달 생리대와 살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피부 트러블에서 해방되었다는 점, 하지만 키퍼도 나름의 단점을 안고 있다. 양이 많을 때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뺏다가 내용물을 버리고 다시 넣어야 한다. 또 가끔 새서 팬티에 묻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양이 많은 날에는 날개와 똑딱단추가 달린 검은 먼 생리대를 함께 쓴다.

흔히 생리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깨끗한 하얀색이다. 생리대는 하야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 오히려 진한 색은 살지 않더라도 얼룩이 남지 않아서 훨씬 편리한데도 말이다. 아마도 그것은 중학교 2학년에 어머니가 몰래 건네주신 하얗게 접힌 옥양목 생리대가 내 무의식 어딘가에 신화처럼 뚜렷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하얀색 신화에 대해 아주 불쾌할 정도로 빈정댄 영화가 바로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이다. 주인공 수정이 재훈과 첫날밤을 치르고 수줍은 듯 자신의 처녀성의 증거로 보여 주는 피 묻은 하얀 시트, 이 장면은 처녀성에 대한 강박이 사회적 속물의식으로 절묘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그것도 '오! 수정'이라고 찬미조로 빈정대면서 말이다. 각종 일회용 생리대 광고가 어필하고자 하는 순결한 하얀색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와는 영 반대인 어두운 벽돌색의 키퍼와 검은 생리대는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한 남자에게만 바쳐져야 하는 처녀성"이라는 고리타분한 가부장적 성윤리가 시대를 지나오며 어떤 사회적 속물 의식으로 왜곡되어, 탈현대라고 하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끈질기게 여성에게 어떤 강박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 매닉(anamellee@hotmail.com)



Goodnight Pad closed



Regular-Maxi opened



“오늘 나 수영장 못 가.
그거 시작했어...”

“너 오늘따라 신경질적인데 혹시
그거냐?”

세상에 이름 없는 것이 흔치 않거늘 왜 “그
거”로 불리우지? 어느 시인이 그러지 않았
어? 이름을 붙였을 때 내게로 와 꽃이 되
었다고... 꽃보다 더 붉은 피를 귀찮은 일
혹은 고통으로 출려 보내지 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알 꺼낸 사람이 먼저 시작해 보라구? 아아
알았어 알았다구!!!

나에게 월경은 새로운 자궁벽을 만들고 새
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야. 내가 살아 있음
을 알리는 붉은 피를 보게 해 주고, (가끔
은 고 귀여운 것들이 세상 구경을 하고 싶
어 허락 없이 스물스물 밖으로 배어나기도
하지만 말야. 히히히^^) 또 아가를 가지고
심은 때와 그렇지 않은 날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고 있지? 내 얘
기를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이 꽃을 만들
차례라구! 헤이, 거기 당신 수줍게 웃지만
알고 크게 한번 “월경” 하고 외쳐 보라고
~~~~~

## 리플 1. 탐폰 사용기

글쓴이: lei's be

엇그제 처음 써봤음.

샌다. (라기 보다는 자주 갈아야 하는 건  
가? 아냐, 역시 새는 것 같아.)

왜 섰까...

짐작이 가는 이유

1. 양이 많아서.
2. 잘못 끼워 넣어서.
3. 탐폰이 작고 거개(정확한 명칭을 까먹  
어 버림)가 넓어서...
4. 제품이 나빠서.

무얼까. 이유를 알리가 없다. 그러므로 대  
책도 없다...

나는 생리대 파인가...

## 리플 2. 남동생 생리대 심부 름시키기

글쓴이: 미술선

아직 크게 “월경~” 하고는 절대 못 외치겠  
지만...

남동생 슈퍼 가는 길에 “아~ 생리대 사와,  
울트라슬림이라고 써 있는 걸루~”라고 시

킬 줄은 안답니다. ㅎㅎ

제판에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될까하고  
해 보는 건데...

처음에는 같이 슈퍼 갔을때 아무렇지도 않  
은 척 같이 구입하는 걸 보여주다가 나중  
에는 빈틈은 일부러- 빈틈은 귀차니즘으로  
인해 가끔 시켜 분담니다.

^^...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쟁쟁기도 해요.

사실 젤루 궁금한 건 동생 혼자 사올 때 슈  
퍼 주인 아줌마 아저씨의 표정이랍니다-

동생이 나간 뒤에 뭐라 할까요~

또 동생은 무지무지 쪽팔리지만 억지로 심  
부름하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생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 숨  
길 게 없다는 건 맞는 거 같아요. ^^

## 리플 3. 나에게 월경은

글쓴이: js

나에게 월경은 최후통첩같은 것이었다. 여  
성이라는-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사소한-기  
절하게 거부감드는 캐릭터에 나를 맞추어  
야하는 때가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는 최후  
통첩 말이다

그래서 나는 월경을 하게되기를 원치 않았  
다. 내가 여성이라는 그 완벽한 증거는 원

\*위의 글들은 제5회 월경페스티벌 홈페이지  
(www.MenseFest.com)의 월경수다에 올라 온 글입니다.

지모르게 좀 서글프고 불편했다. 월경을  
하기 이전의 나는 뭐랄까, 좀 더 양성적이  
고 평화로웠다.

근데 작년 월경페스티벌을 보고 참 많이  
생각했다. 내가 월경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들이 결국은 다 사회가  
만든 편견의 영향이라는 걸 알게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픈일이다. 왜 우리는  
생리대의 이물감과 월경혈이 주는 색다른  
공포감만 확대시켜 입력되었던가. 수백억의  
말들이 하는 자연스러운일인데 왜 자연스  
럽지 못한 일로 기억되도록 사회는 내버려  
두는가!!



# 여자되기

글:그림 장차현실

이 아이는 '왜'를 거듭하며 터득해 간다.



어렵다.  
잘 알려주어야 할텐데...  
그래야 스스로 선택한 성을  
건강히 즐기고  
살 수 있으련만...



광묘 ▶  
콘돔부는 이강 ▶▶



◀ 나나  
장달 ▶



◀◀ 이강  
◀ 보리  
▼ 릴리즈



제5회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 디아  
담배여신들 ▶



베이 ▶



◀ 튼튼소녀  
시추 ▶



◀◀ 숨  
◀ 안토니아  
▼ 오! 컵라면



\* 2003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www.MenseFest.com](http://www.MenseFest.com) 에서  
제6회 월경페스티벌을 기획할 영페미니스트들을 모집합니다.

Thanks  
to . . .

월경페스티벌의 박한 행편을 널리 헤아려 주신 출연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은광순\_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유채지나\_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 | 영화평론가  
이남희\_ (사)한국여성연구소 | <여성과사회> 편집장  
김은실\_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권수현\_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 한국여성인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연구부장  
이숙경\_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 <아줌마> 편집장  
이영란\_ 경희대 연극영화과 교수 | 연극배우  
조한해정\_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현 경\_ 뉴욕 유니온신학대학 교수 | 에코 페미니스트  
박흥주\_ <여성과사회> 편집위원  
문성희\_ (사)여성문화예술기획 공연기획국장 | 연극연출자  
원유나\_ 제3회 월경페스티벌 기획, 연출 | 청소년 웹진 <ch10> 기획  
안명옥\_ 소녀들의 신부인과 원장 | 포천중문의대 교수  
문현주\_ 몸여성학의원 원장  
이미경\_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 자문위원



## 자원활동가

썬, 몽, 칸, 백여시, 니나, 동소심, 영, 안마사, 덩채, 해연, 기린, 지나르스키,  
다현, 예비역, 지혜, 이채, 신, 별, 김규순, 한진희, 박이대순 님 등 행사를 위해  
온 몸 가득 빔방울과 명방울을 울려 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행사 관련 전 홍보물 디자인\_ 조민주(www.zookeeper.co.kr)  
홈페이지(www.MenseFest.com) 제작 및 관리\_ 박동진

## 기업후원

현대약품, 다이아몬드35, 보령메디앙스, 일동제약, 동아제약,  
바이오텍, 한국오기농, 동아오츠카, 유한킴벌리 등

## 개인후원

윤해린 오경화 유정이 변도윤 임효진 박선영 이재경 김정희 김현미 임순례 김현숙  
김 욱 이유영호 이영숙 박옥희 김기태 김보람 등

서울미디어 한솔음향 동양인쇄소 서울여성플라자 삼두치킨호프 우리만화연대  
도서출판 사랑플러스 편집실

## 요가처럼 나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 플레이텍스 탐폰

요가만큼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요가 수련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요가수련도 그 날 만큼은 불안하고 불편한 건 피할 수가 없었죠.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미국, 유럽 등지의  
요가 매니아들이 애용하는 플레이텍스 탐폰은 체내형이라 안전하고 편안해서 그날이 와도 땀소와 똑같이 언제나  
요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날,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플레이텍스 탐폰 인걸요."

한국요가협회 학원장사 심영경



www.playtextampon.co.kr

자극 걱정없이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참기분종은 馬장조 화음



잘 어우러진 화음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듯이  
한국마사회는 경마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 주요 사회 환원실적

●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1조 5,499억원) ● 출산발전기금(1,834억원) ● 농촌정착사업 및 사회복지증진사업(458억원) ●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106억원)

오늘부터 더 예쁘게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조금 더 신중해지자!  
새로운 저(低) 호르몬 함량의 피임약, 에이리스

피임을 시작할 때, 새로운 피임약을 선택할 때, 호르몬이 적은 에이리스!  
 믿을 수 있는 피임은 물론, 보기 싫은 여드름을 치료해주거든요.  
 호르몬 함량이 적은 에이리스로 오늘부터 더 예쁘게 사랑하세요.



-  **저(하) 호르몬의 깔끔한 파임효과**  
에스트로겐 0.02mg, 프로게스테론 0.1mg. 에이리스는 1주기 당 2.52mg의 적은 호르몬 복용으로 믿을 수 있는 파임효과를 나타냅니다.
  -  **깨끗한 피부를 위한 여드름 치료효과**  
에이리스는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남성호르몬을 조절해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  **임신은 계획대로, 생리주기는 규칙적으로**  
에이리스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복용을 중단하면 언제라도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합니다. 또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해 한달 내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에 이 리 스 정

- 에스트로겐 ethinyl estradiol 0.02mg
- 프로게스테론 levonorgestrel 0.1mg



전, 깨끗해서 쓰죠  
화이트'는 다르니까요...



New 그린시트로  
흡수속도가 2배! 깨끗함이 2배!

다른 브랜드 대비 2배

- ① 그린시트가 몸에 밀착되어
- ② 번들 흡수하고 경량에서 모아주니까
- ③ 설 염려 없어요

깨끗함이 달라요!

